

* 연말 시상식



매년 12 월, 일년간 학업 성과를 시상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성장한 아이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삭개오가 올라간 뽕나무 이야기로 시상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부모님들이 다 일어나 자신의 아이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교학생, 부모님들, 선생님들로

구성된 학교 합창단의 감사의 찬송과 축복송으로 시상식이 끝이 났습니다. 아이 하나 하나 상장을 주며 악수 하고 끌어안을 때마다 아이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행사가 은혜 안에 끝이 나고, 어느 누구도 남편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나를 힘껏 안아주며 어깨를 다독여 주는 그 포옹 속에 그를 보고픈 나와 동일한 그리움을 보았습니다. 보이진 않았지만 그가 남기고 간 그의 꿈을 오늘 밤도 보았습니다.

* 2019 년 1 월 9 일 드디어 새 학년이 시작 되었습니다.

방학 동안 보고 싶었던 친구들과 선생님과 뜨겁게 포옹을 하고 방학 동안의 이야기를 주고 받습니다. 힘차게 구호를 외치며(예수님을 위해 일어나라, RISE UP FOR CHRIST) 시작 했습니다. 신입생도 있고 부모님이 시내에서 일자리를 갖게 되어 떠난 친구들도 있습니다. 부모님과 학생들과 함께 첫 예배를 드리고 2019 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학생들이 잘 자라기 원하며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각 학생들에게 보내주신 새 학기 선물로 아이들의 함성은 더 우렁찼습니다. 아이들을 보니 정말 웃음이 절로 납니다. 저를 이 땅에 붙들어 주고 있는 것은 아이들입니다.

가장 많이 눈물을 흘리는 곳도 여기이고, 가장 많이 웃는 곳도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 아빠 만큼의 인기스타 유빈. 유빈! 유빈!

유빈이는 농장아이들을 위한 방과후 사역을 꾸준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함께 찬양하고 수학을 가르치고 한달에 한번씩 생일 파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는 아이들이 제일 기다리는 패션쇼를 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유빈이가 준비하였습니다. 일이 많았어서 힘들 만도 한데, 작은 것 하나도 잘 준비하려는 유빈이 마음이 너무나도 귀하게 보였습니다.

예전엔 우리 차만 보이면 “파스터 김 파스터 김 (김목사님, 김목사님)” 하며 환영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유빈, 유빈” 하며 환호합니다. 3 살부터 사역지에 다니면서 사탕을 나눠줬던 유빈이가 이제는 말씀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니 그저 감사합니다.

* 담희

담희는 유치원 학예회를 열심히 도왔습니다. 우쿨렐라로 아이들 노래를 가르쳐 주는 그 시간 늘 싱글벙글 합니다. 또한 방과후에는 초등학생들에게는 한글을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담희는 또한 그림 그리기를 좋아합니다. 주말이면 방에서 몇시간 나오지도 않고 그림을 그립니다.



나무 한 그루와 할아버지 한 분, 그리고 어린 손주들이 나무를 바라보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그림은 삭개오가 나아가 들어 손주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뽕나무에 놀러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삭개오는 아마도 예수님을 만나 후 삶이 완전히 바뀌었고, 그 나무를 지나갈 때 마다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셨던 그 감격의 시간을 기억했을 것이라고. 하루하루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징표가 있다는 것이 삭개오에게는 큰 축복이었을 거라고 설명을 덧붙이네요. 그렇네요.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이 학교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뽕나무로 사용되어지길 기도합니다. 가끔 담희의 이런 해석에 은혜를 받습니다.

* 엄마와 손잡고..

저의 엄마는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어릴 적 시골에 살 때, 작은 교회에 다녔는데 엄마는 낮이건 밤이건 상관없이 교회에 가서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주일날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교회에 출석을 했었지요. 낮에도 밤에도요. 기억이 납니다. 엄마는 주무시는 그 시간도 기도하셨습니다. 주무시다가도 갑자기 일어나셔서 저를 깨워 옷을 주섬주섬 입히십니다. 나는 갑자기 자다가 엄마의 손에 이끌려 집을 나섭니다. 잠이 덜 깨서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좁을 논두렁 길, 가로등 하나 없는 컴컴한 길을 엄마 손만 의지하고 갑니다. 걸을 수 없는 날에는 엄마가 나를 등에 업고 교회로 갑니다. 예배당에 도착하면 엄마는 방석을 길게 바닥에 편 후 나를 거기에 눕혀놓고, 엄마는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엄마의 기도소리를 들으며 자다 보면 다시 집에 돌아올 시간에는 해가 떠 있습니다.

얼마전 이 때가 기억 났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컴컴한 길을 걸었지만 두렵지 않았었습니다. 엄마가 내 손을 잡고 있으니까요. 엄마가 어디로 데려갈 지 믿으니까요. 컴컴한 길에 서서 엄마에게 한번도 따져 묻지 않았었습니다.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 거냐고요. 길이 보이지 않으니 말해달라고요. 그저 엄마니까 엄마를 믿으니까 말입니다.

오늘도 컴컴한 길을 걷습니다. 그러나 두렵지 않은 것은 내가 유괴범 손을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록 컴컴하여 바로 앞이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지는 확실히 알고 있으니까요.

* 나의 일기.

며칠 전부터 아이들과 연말 학교 행사 후에 아빠를 보냈던 바닷가에 가기로 약속을 했지만 막상 아침이 되니 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담희와 유빈이와 아침에 미리 집에서 한참을 울고 눈물을 훔치며 길에 올랐다. 가는 길이 너무도 아름다웠다. 푸른 잎 없이 온통 보라색 꽃을 피우는 자카란다 가로수 길을 지나, 빨간 칸나 꽃 길, 지평선이 보이는 광활한 들판 길, 양들이 풀을 뜯고 있는 평화로운 길, 젖소들이 줄을 지어 물을 찾아가고, 타조들은 푸른 하늘을 쳐다보고, 흰구름을 우리와 함께 길을 가준다.



바닷가에 도착해서는 바닷가 바위 위에, 두 딸은 서로 멀찌감치 자리를 잡고 앉아있다. 한 아이는 파도 소리 만큼이나 울고 있고 한 아이는 조용히 찬송을 듣고 있다. 나는 그저 위에 앉아 아이들의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본다. 아빠만 만나지 말고, 위로 하시는 하나님 아빠를 만나게 해달라고 조용히 그분께 아뢰면서... 한 시간 쯤 지났을까? 퉁퉁 부은 눈으로 나에게 온 담희, 입술이 바짝 말라 나에게 온 유빈, 아이들과 손에 손을 잡고 바다를 뒤로 하고 집으로 향한다. 서로 잡은 손을 자꾸만 꿈지락 거리며 바닷가를 걸었다.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우리 손으로 서로를 위로하였다. 나중에 나중에,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다하고 진짜 남편과 아빠를 만나러 가는 길은 이보다 더 아름답겠지....

그 소망을 품고 오늘도 이 자리에 서 있다.

기도제목을 나눕니다.

1.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의 손만 의지하여 걸어가도록
2. 2019년 학교 직원들과 학생들이 복음으로 날마다 거듭나는 경험을 하도록
3. 학교 운영에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도록
4. 학교가 각 가정과 교회와 지역에 복음의 역사를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되도록
5. 고등학교, 대학교 설립하는 과정 과정에 하나님이 필요한 동역자를 붙이시도록
6. 슬픔 가운데도 감사로 날마다 일어나도록
7. 고 3, 고 2가 되는 딸들의 진로를 주님이 친히 이끄시도록 (아이들이 비교적 잘 적응하고 견뎌내고 있지만, 담희는 잠을 못 자고 학교에서 자주 일찍 울때가 있습니다.유빈이는 아빠를 떠난 직후에 두세달 많이 울더니 이제는 좀 나아졌는데, 담희는 그때 울지 못한 울음이 지금 터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변함 없으신 하나님. 힘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특별히 기도 부탁드립니다.)